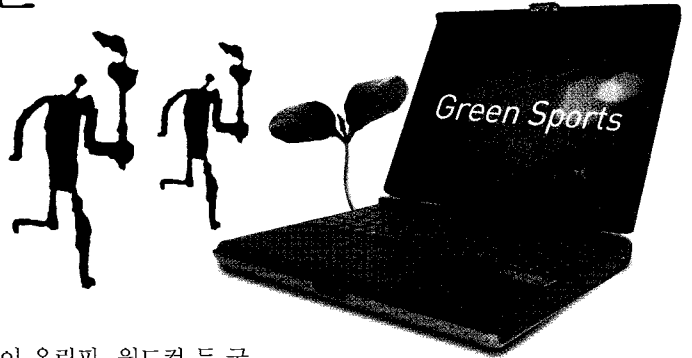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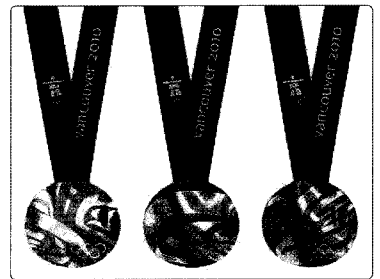


올림픽 3대정신으로 떠오른 글로벌 '환경' 사랑 그린스포츠클를 통한 녹색성장 실천



‘스포츠 외교’라는 용어로 대표되듯이 올림픽, 월드컵 등 굵직한 국제경기는 국가이미지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다. 지난 달 개최된 밴쿠버 동계 올림픽은 캐나다의 자연친화적 정책기조를 세계에 재확인시키는 올림픽이었다. 밴쿠버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2006년부터 매년 ‘지속가능성 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를 발간하는 등 친환경적 대회 개최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금속폐기물을 활용한 친환경메달을 수여하여 캐나다의 친환경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켰다. 메달은 캐나다의 자연풍경을 표현하기 위하여 구부러진 디자인에 범고래와 갈가마귀를 형상화한 것이다. 이러한 친환경적 국제경기 개최 노력은 1995년 제17회 릴레함메르동계올림픽에서 선언된 무공해 환경올림픽 선언에서 시작되었고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이를 계기로 ‘환경’을 ‘스포츠’, ‘문화’와 함께 올림픽 3대 정신(pillar)으로 선언하였다. 이제 ‘환경’은 주요 국제경기를 성공리에 개최하는데 결정적인 변수로 자리잡은 것이다.



2010 밴쿠버 동계 올림픽 메달

스포츠클에 부는 녹색바람

우리나라의 그린스포츠클를 위한 노력은 2001년 수립된 「환경친화적인 국제경기 대회를 위한 환경지침」에서 시작되었다. 국제경기의 유치도시 선정부터 입지선정, 경기시설 건설, 대회준비 및 운영 그리고 대회종료 이후까지 국제경기 전과정에 걸쳐 쾌적한 경기여건을 조성하고 개최지역의 전반적인 환경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지켜야 할 환경관리 수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2002년 월드컵 올림픽에서도 ‘문화’, ‘정보’, ‘경제’, ‘관광’과 더불어 ‘환경’을 월드컵 5대 목표로 설정하여 환경친화적인 국제경기 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였다. 쓰레기매립지 옆에 건설된 상암월드컵경기장을 대표로 개최도시별로 대기, 수질 등 분야별 환경질 개선을 추진하였다. 대회 운영상 필요한 물품들을 환경친화적 상품으로 사용하고, 행사차량으로 천연가스버스 등 저공해 차량의 이용을 확대하였다.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분리수거, 종이 사용 최소화 등 또한 함께 추진된 정책이다. 특히, 길거리응원을 포함하여 경기 종료 후 관객들 사이에서 ‘Clean up’



홍준석 |
환경부 환경정책 실장

연세대학교, 미 Alabama State Univ
환경부 법무담당관, 폐기물정책과장, 기획예산담당관,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수질보전국장 등 역임
tel. 02-2110-7940 | jshong@me.go.kr

시간이 자발적으로 운영되어 우리의 한층 성숙된 문화를 증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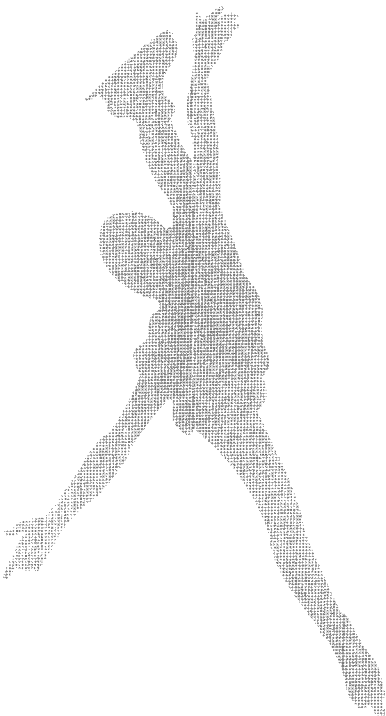
최근 국내스포츠 분야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천하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야구·배구·농구·축구 경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최소화하고자 정부부처로서는 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와 스포츠계의 한국야구위원회, 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농구연맹, 한국배구연맹이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정부는 선수, 관객, 심판, 경기 운영진 등 스포츠 참여주체별로 실천 가능한 ‘Green Sports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고, 각 스포츠연맹은 정부부처, 관람객 등 스포츠 참가자들과 함께 ‘녹색구장’ 조성을 위한 경기장 내·외 시설, 경기운영전반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실천하는 것이다. 관객들은 1회용품 등 사용을 자제하고 경기장 청결 관리에 협조하며, 선수와 심판은 빠른 경기 운영으로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방지하고, 대회 운영진은 저탄소 경기 운영 시스템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 등이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으로 꼽힐 수 있다.

그린스포츠 실현 방안

2022년 월드컵 유치위원회가 발족되어 개최도시 선정에서부터 각종의 유치 활동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FIFA는 유치를 원하는 국가들에게 ‘환경’ 부문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유치 국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그 계획을 핵심적인 변수로 고려하고 있다. 또한, 평창 동계 올림픽, 아시안 게임 등 주요 국제경기 유치를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보다 구체화된 그린스포츠 실현 계획은 치열한 유치 작전의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환경부는 그간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서 시도되고 있는 ‘그린스포츠’ 움직임을 토대로 국제 경기에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스포츠’를 이룰 수 있는 정책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2008년 제안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국가비전 아래 발전된 녹색기술, 기후변화 대응 정책 등 환경정책의 발전 성과와 해외 우수 사례들을 반영하여 국민과 대회 참가자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그린올림픽, 그린월드컵을 개최할 방안을 세 가지로 제안해본다.

참여자들의 파트너십을 발휘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

첫째, 대회조직위원회, 정부, 시민, 선수, 후원기업 등 모든 참여자간의 파트너십을 발휘하여 그린스포츠를 실현하는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참여주체별로 환경관리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고 개최도시 선정부터 경기 개최, 그리고 종료 후까지 전과정에서 환경관리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대회조직위 내에는 환경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대회조직위, 개최도시, 환경부 등 정부부처, 지역주민 등으로 ‘환경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보다 폭넓은 계층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환경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환경관리대책의 적정성, 홍보대책 등 전반 사항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끝으로 국제경기의 대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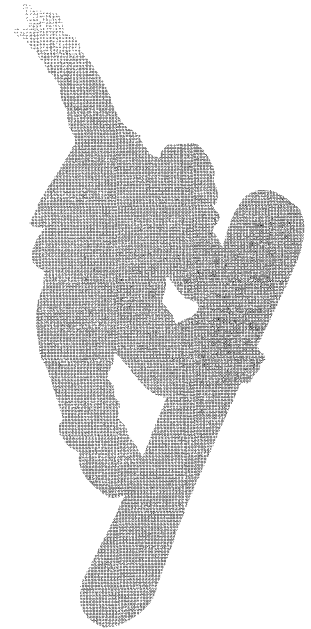
파급효과를 이끄는 중요한 주체로서 기업이 ‘그린스포츠 마케팅’을 펼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공식후원기업, 공식공급업체 등을 선정할 때 기업들의 환경경영 정도, 환경관리노력에서의 참여 의지 및 구체적 계획 등이 면밀히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꾸준히 준비하는 것이 급선무

둘째, 국제경기 개최 준비 등 전과정에서 그간 추진된 녹색성장 정책의 성과, 환경신기술이 적극 반영되어 개최도시별로 달성가능한 환경성과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짧은 기간 모여 치러지는 국제경기에서 에너지, 자원 소비량이 급증하고 자연환경 훼손, 쓰레기 등 오염물질이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한 부수물이다. 개최도시 선정시부터 대회 개최시 유입되는 인구, 증가하는 교통량, 발생할 쓰레기 등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예측하여,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종 환경관리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환경친화적인 경기운영 방식이 사전에 준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자원, 대기질, 폐기물 등 분야별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특히, 대회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국제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금번 벤쿠버 올림픽에서는 경기 전과정의 이산화탄소 발생량측정(Carbon Footprint)을 시도하였고, 성화가 봉송되어 점화되는 과정에서의 이산화탄소 발생량도 측정, 공개되었다. 또한 디젤 사용량, 쓰레기 처리량 등 부문별 지표를 작성하여 ‘지속가능성 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를 통하여 2006년 올림픽 개최 준비부터 실시된 환경관리성적을 발표하였다. 2008년 창원에서 개최된 람사르협약당사국총회에서도 탄소무배출을 목표로 참가자들의 이동에 따른 이산화탄소 발생량, 행사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양을 측정하여 배출량에 따라 표준참여금을 자발적으로 납부하도록 하였다. 그 참여금은 탄소상쇄펀드(Carbon Offset Fund)라는 기금으로 조성되어 지구 기후변화 대응에 활용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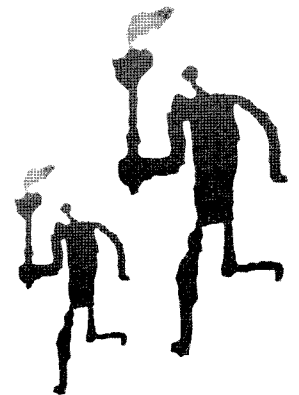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참여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

셋째, 국민과 대회 참가자들 모두가 스포츠를 즐기면서 녹색성장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참여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최도시를 환경체험 또는 관광 도시로 중점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경기장, 선수촌 등 관련시설을 건축하거나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할 때 최신 녹색 기술을 적용하여 경기장 자체를 녹색기술의 체험장 또는 전시회장으로 설립할 수 있다. 에너지고효율 전자·전기장치, 태양광 등 대체에너지 사용, 빗물의 재사용 시스템, 절수형 설비 등을 통한 그린 건축 설계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개최도시의 자연경관, 생태계 등과 조화되도록 경기관련시설을 배치하고, 경기장 주변 녹지나 산책로 등 휴식공간, 공원 등을 충분히 조성하여 에코 도시(Eco-city)로서 육성할 수 있다. 또한, 생태관광 지역 등 인근 관광지역과 연계하여 ‘패키지형 그린투어 코스’를 개발하여 경기 참여자들의 관광유구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관광상품을 통한 시민참여 뿐 아니라 다각적인 환경실천 교육·홍보기법이 추진되어야 한다. 국제경기대회 로고, 캐릭터 등에 환경친화적인 문구나 상징을 포함하고, 그린스포츠를 대표하는 테마 행사 등이 개최될 수 있다. 이러한 참여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 기업의 마케팅 능력이 크게 활용될 수 있다. 밴쿠버 올림픽에서도 코카콜라, 파나소닉 등의 그린스포츠 마케팅이 환경올림픽을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하였다. 코카콜라는 성화봉송의 탄소배출량 측정을 적극 주도하였고 파나소닉은 비디오 컨테스트를 통해 '에코아이디어'를 공모하여 대회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방식의 홍보프로그램과 접목하여 국제경기 참가자별로 실천할 수 있는 그린스포츠 실천 방식을 만들어 그 실천을 유도하여야 한다. 국내에서 수립된 'Green Sports' 가이드라인과 같이 선수, 관객, 심판, 경기운영진 등 모든 경기참여자들이 저탄소 경기 운영, 쾌적한 경기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실천 수칙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 GREEN SPORTS ”



그린스포츠로 녹색성장 실천 문화 정착을 기대하며

2008년 8월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된 '저탄소 녹색성장'은 이제 2년을 맞이하고 있다. 그간 녹색성장을 위한 전략, 계획이 모든 분야를 망라하여 수립되었고 2009년에 수립된 '녹색성장 전략 및 5개년 계획'과 정부투자계획은 녹색성장을 위한 노력을 잘 나타내 준다. 이제는 이러한 계획을 토대로 녹색성장을 위한 그 '실천'을 강조하여야 한다. 금년 2월 정부가 '녹색성장 7대 실천 과제'를 선정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스포츠를 통한 녹색성장의 실현은 대표적인 녹색성장의 실천과제라 할 수 있다. 짧은 기간 동안 대구 모로 치러지는 스포츠 경기일수록 환경부하는 집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반면, 스포츠를 통하여 환경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고 녹색성장을 위한 산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성숙한 응원 문화가 형성된 것처럼, 그린스포츠를 통하여 녹색성장의 실천 문화, 습관이 국민들 사이에서 쉽게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스포츠에 참여하는 선수, 스포츠를 관람하는 관객, 응원하는 국민 모두가 함께 즐기면서 웃으면서 녹색성장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88년 올림픽의 구호가 '보다 빠르게, 보다 멀리, 보다 높이'였다면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다음 올림픽의 구호는 '보다 환경 친화적으로'가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